

# 해남군,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 속도 낸다

농업 등 5개 분야 51명 자문단 구성  
비전 수립 전문가 의견 적극 수용  
부서별 과제 지속 논의 결과 공유  
“지식 활용 미래발전 노력할 것”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에 아이디어를 보태줄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자문단은 농업업과 문화관광, 보건복지환경, 인프라, 정책지원 등 5개 분야, 5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부서별 과제에 적합한 실무형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변화, 스마트생명 등 농업업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농어

촌수도 해남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 한 해동안 군정 현안과 부서별 과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내 현장 방문도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자체 발굴한 농어촌수도 전략의 부서별 중점과제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5월 중 보고회를 개최해 농어촌수도 비전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이다.

해남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발전 전략인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자문과 자문위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남군 농어촌수도 전략 추진에 민관 협력의 새로운 계



해남군이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에 아이디어를 보태줄 자문단을 구성해 지난달 25일 출범식을 열었다. 해남군 제공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열정에 자문단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더해 앞으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발전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사랑상품권 유통 실태 점검  
오늘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강진군이 7일부터 28일까지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통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처분이 이뤄지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무안군, 지역 돌봄체계 구축 목표

전라남도 무안군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로움 오토티즌 중흥-S 클래스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지역 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아동)복지관련 사업의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안군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향후 5년간 위탁을 맡게 되며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모집기간 내 무안군청 주민생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민생활과 아동보육팀(061-450-5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선사회복지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도군, 미디어배상책임 보장 등

전라남도 진도군은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개장 1년 만에 회원 3만명 돌파  
맛플무안몰, 19일부터 기념 할인

전라남도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이 개장 1년 만에 누적 회원 수 3만명을 돌파했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문을 연 ‘맛플무안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획전과 다양한 혜택을 꾸준히 운영한 결과 단기간에 회원 3만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햇양과 기획전’은 당초 12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 속에 13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며 단 2일 만에 조기 종료됐다.

무안군은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회원 3만명 돌파 기념 할인전’을 진행해 전 품목을 대상으로 33% 할인 쿠폰을 1인당 2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본격 출하가 시작된 햇양파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니 무안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강진군이 개최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대회에 전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대회 성황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이 방문하며 강진군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캐롬과 포켓볼 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75세 이상부, 60-75세 어르신부, 59세 이하부 등

세부 연령별로 나눠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여 지역 주민들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함께 호흡했다.

대회 기간동안에는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에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져 1억9000만원의 경

제효과를 내며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강진군의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동시에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해경, 연안안전교실 운영... 해양안전문화 확산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지난 3일 YMCA주관으로 목포시 등근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해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연안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안전교실은 가상현실 해양안전체험(VR), 바다안전 O/X퀴즈, 구명환 던지기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구명조끼 바르게 입기 대회, 심폐소생술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연안안전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해양안전 조기교육을 받고 보다 안전한 바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양경찰 직원들이 지난 3일 연안안전교실 운영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QR code and text: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